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11. 11(월) / 총 5매(본문3, 붙임2)
담당 부서	항공기술과	담당자 • 과장 민풍식, 사무관 원정운, 주무관 박일훈·김은혜 • ☎ (044) 201-4284, 4285, 4289, 4292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1(월) 14:00 이후 보도 가능

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항공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- 10일 보잉 737NG 항공기 비행횟수 2만회 등 100대 점검 완료
- 25일까지 전수점검 완료하고, 향후 선 점검 후 신규 도입 등록 키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미국 연방항공청(FAA)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 개선지시를 발행('19.10.3)한 것과 관련하여,
 -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, 미국 보잉사·연방항공청(FAA)에서 제시한 점검기한 보다 앞당겨 11월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2만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

< 국내 737NG 항공기 점검 현황('19.11.11 기준) >

점검대상	누적비행횟수 3만 이상	누적비행횟수 22,600~3만미만	누적비행횟수 2만~22,600미만	누적비행횟수 2만 미만	합계
점검 대상	42	22	15	71	150
점검 완료	42	22	15	21	100
균열 발생	9*	4*	0	0	13

* 동체 균열 발생(13대) : 대한항공 5, 진에어 3, 제주항공 3, 이스타항공 2

-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인 42대는 지난 10월 10일까지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한데 연이어,
- 2만회~3만회 미만인 37대에 대해 11월 10일까지 모두 점검완료

하였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중지 조치하였습니다.

○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하여는 제작사(보잉)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, 제작사(보잉)에서 수리방법·절차 마련 및 긴급수리팀을 보내어(10.31일 방한)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-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며,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초에 결함항공기(13대)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.

* 항공사마다 수리장소는 다르며, 대한항공·진에어는 국내(대한항공 정비고)에서, 제주항공·이스타항공은 보잉사와 수리장소 등 협의 중

□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1월 11일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하고, 최근 보잉 737NG 동체 문제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항공사에 보다 완벽한 수리·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으며,

○ 아울러 향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① 현재 2.26만회 이하 비행기 36대 점검결과 모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으나,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하여, 국내 등록 150대 조기 완료

②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동 점검부위를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,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 하도록 항공안전감독관 통해 철저히 관리

③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 하고,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 허용

④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안전관리 감독 강화

-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, 이후 반복 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수리(정비)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점 관리·감독하는 부분은 ?

- 항공기 동체 등 수리작업은 제작사(보잉) 및 제작인증당국(FAA)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마련된 수리방법·절차에 따라야 함
- 이번 수리는 제작사(보잉)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수리방법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수리를 직접 지원하여 수리 후 제작당국(FAA)에서 수리 결과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
 - * 주요 수리과정 : 수리공간 확보(주변 부품 장탈 등), 교체부품 장탈, 새 부품 장착, 주변 장탈품 복원, 작동점검, 제작당국(FAA)에서 수리결과 최종 승인
-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이 제작사·제작당국에서 제시된 수리방법·절차의 준수여부 및 수리 후 정상 작동점검 등을 확인한 후에 운항 재개를 판단

2. 외국에서 최근 737NG 당초 점검부위 인근에 균열이 발견되어 추가점검이 필요하다는데 ?

- 외국에서 737NG 항공기 점검결과 균열이 발생한 항공기 중에서 점검부위 인근에서 균열이 추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,
 - 제작사(보잉)에서 전세계 항공사에게 균열이 확인된 항공기에 대해 주변까지 추가 점검할 것을 요청('19.10.17)
- ⇒ 이와 관련, 국내는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 확인 결과 외국 사례와 같이 기존 점검부위 주변에 추가로 균열은 없었음
- 새로이 균열 우려가 제기된 부위에 대하여 모두 11월 25까지 선제적으로 점검 완료 예정

< 검토 중인 추가점검 부위 >

